

제 308호 · 2015년 5월 27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DHL 익스프레스(Express)사의 미래를 위한 집중, 연계, 성장 전략

물류정책·사업동향

1. 금년 1분기 주요 정기선사 영업이익 증가에도 향후 전망 불투명
2. 중국 텐진시, 타이완과 콜드체인물류 협력 가속화
3. 리퍼 전용선 감소 불구 콜드체인 화물은 지속 증가
4. CONCOR, 인도 하리아나 지역에 물류단지 조성 예정

물류시장동향

1. MPA, Tuas 심수항만 확장 프로젝트 공사 계약 체결
2. 해운·무역 분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첫 번째 수혜 영역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물류이슈

□ DHL 익스프레스(Express)사의 미래를 위한 집중, 연계, 성장 전략



○ DHL 익스프레스 개요

- 도이치포스트 DHL(Deutsche Post DHL)사의 자회사인 DHL 익스프레스사는 택배, 속달 및 소포(courier, express and parcel, CE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
- DHL 익스프레스는 도로, 철도 및 항공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3년 DHL 익스프레스의 매출은 12억7100만 유로로, 전체 도이치포스트 DHL그룹 총 매출(55억1000만 유로)의 23.08%를 차지하고 있음

○ 대응 전략 1 – 집중(Focus) 전략

- DHL 익스프레스사는 '10년 도이치포스트 DHL 기업의 전략인 DHL '집중'(Focus)이라는 전략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였음
- '13년까지 지속되었던 본 프로그램을 통해 DHL 익스프레스는 자사의 이익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함

DHL 익스프레스 포커스 프로그램

목표	세부 추진내용
수입 및 비용 관리	• 규모의 경제 활용 •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 및 자동화 •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간접비의 최소화
체계화된 판매 및 가격	• 수출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

	• 소기업을 타겟 • 사이즈 및 무게가 DHL의 네트워크와 최적으로 일치하는 물품에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가격책정 방침 및 국제 협업을 촉진 • 고객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한 노력
네트워크 관리	• 연료효율이 높은 신규 항공기로의 교체를 통한 비용절감 • 항공기의 공간 임대를 통한 물류 네트워크의 최대 활용 및 비용절감 • 내륙운송의 자동화 및 표준화를 통한 비용절감 • 시간 및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픽업과 배송 루트의 최적화
인적자원 동기부여	• 상호간의 이해 및 교육을 통한 임직원들 간의 화합을 조성 • 공인 국제 관리자 프로그램¹⁾을 통한 통일된 기업문화를 조성 • 지속적이며 뛰어난 성과를 통한 임직원의 동기부여 • 공인 국제 전문가 프로그램²⁾을 통해 익스프레스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임직원에게 전달

자료 : Deutsche Post DHL (www.dh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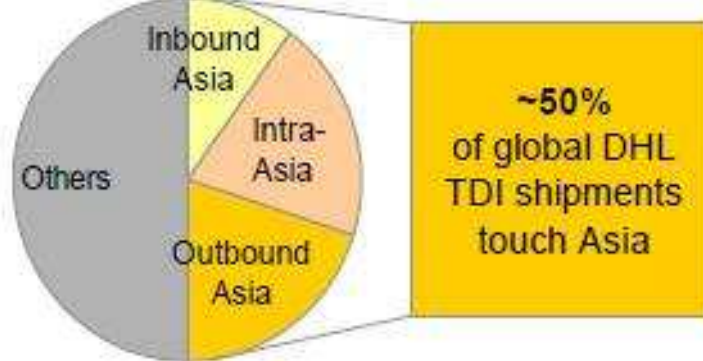
- 본 포커스 전략 프로그램에 따라 DHL 익스프레스사는 전사적으로 작업의 흐름이 개선돼 결과적으로 기업의 속도가 빨라지며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됨
 - DHL 익스프레스사는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며 기업의 전사적인 발전을 위해 기존의 물류허브 및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에도 투자를 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DHL 익스프레스사의 미래의 성장 및 성공은 더욱 치열해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트렌드와 비용 및 물동량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 DHL 익스프레스사는 지난 몇 년간 기업구조와 비용구조 개선에 성공함에 따라 국제적인 물류시장에서 자사의 성장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함

1) Certified International Manager (CIM)

2) Certified International Specialist (CIS)

- DHL 익스프레스사는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함에 따라 향후 본 기업의 투자는 아시아의 물류 설비 및 운송수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DHL TDI 전 세계 물동량, 2011 출발지/목적지



자료 : Deutsche Post DHL (<http://www.dhl.com>)

- DHL 익스프레스사는 아시아 및 중동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면서 두 지역에서 자사의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임
- DHL 익스프레스는 '14년 베트남의 호치민에 2,500m² 규모의 서비스 센터 건축 투자 계획을 밝혔음
- 또한 DHL 익스프레스는 '14년 11월부터 아시아시장의 시장잠재력에 따른 신규 Intra-Asia 익스프레스 항공화물 서비스를 신설했음
- DHL 익스프레스사는 아시아와 더불어 중동시장을 투자 타겟으로 선정,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음
- DHL 익스프레스사는 아랍 에미리트 연방의 메이단(Meydan)과 두바이(Dubai)에 대규모의 운영시설을 설치했음
- 186,000m² 규모의 총 1억 디르함(AED, 약 2,723만 USD)³⁾이 투자된 운영시설은 인도어 분류(Indoor sorting), 적재구역 및 지역본부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DHL 익스프레스사는 '14년 8월 고객 소매 서비스 지점을 메이단 지역의 DHL 시설과 두바이의 오아시스 몰(Oasis Mall), 이븐 바투타몰(Ibn Battuta Mall) 및 아라비안 랜치스(Arabian Ranches)에 개점했음
- DHL 익스프레스는 중동지역에 자사의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 총 28개의 서비스 지점을 구축하며 자사의 네트워크를 확장 중에 있음
- 또한 본 투자에 따른 DHL 익스프레스의 물류 네트워크의 확장은 향후 중동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3) 1 USD = 3.67 AED 외환은행 2015.5.22. 매매기준율 적용.

- DHL 익스프레스사는 아시아 및 중동지역 외에도 미주지역의 전자상거래 물류 시장과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DHL 익스프레스사는 캐나다의 앨버타(Alberta)를 경제적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했음
 - 또한 DHL 익스프레스사는 앨버타를 경제허브로 육성하고자 미국의 신시내티(Cincinnati)와 캐나다의 앨버타를 연결하는 항공화물 루트를 신설했음
 - 본 신규 항공화물 루트는 특히 미주지역의 전자상거래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부문에서 DHL의 성장을 목표로 개설된 것임

○ 대응 전략 2 - 전략 2020 : 집중(Focus), 연계(Connect), 성장(Grow)

- DHL 그룹은 '14년 "전략 2020: 집중(Focus), 연계(Connect), 성장(Grow)" 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선보였음
 - DHL 그룹은 본 신규 전략인 전략2020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기업의 핵심 역량,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하는 역량 및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 또한 DHL 그룹은 본 전략2020을 통해 본 그룹의 '13년의 세전수익(EBIT)인 28억 6천만 유로 (EUR, 31억 9433만 UDS)⁴⁾가 '20년까지 연평균 8%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DHL 그룹의 '15년 세전수익 목표는 33억 5천만 유로에서 35억 5천만 유로 사이에서 유지된다고 밝힘
 - 이에 더하여 소포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 소포 비즈니스가 향후 우편-전자상거래-소포 사업부 전체의 영업이익을 연평균 3%씩 성장하게 할 성장 동력이라고 밝힘
 -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포워딩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DHL 그룹은 DHL 익스프레스사가 전체 그룹의 수익성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전략2020 : 집중(Focus)
 - DHL 그룹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이 지향하는 기업의 방향은 전체 DHL 그룹과 자회사의 향후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DHL 그룹은 물류 시장 내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시장을 공략하는 자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음
 - DHL 그룹의 4개 자회사는 물류 시장 내에서 각기 다른 4개의 분야에서 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4개 자회사가 지니고 있는 물류시장에 대한 이해, DHL이 제공하고 있는 물류서비스 및 물류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는 서로 비슷하다고 밝힘
 - 이에 더하여, 물류사업의 높은 매력과 성장가능성으로 인해 물류사업은 지속적으로 DHL의 핵심적 사업이 될 것이며, 그룹 전체의 역량이 물류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4) 1 USD = 0.90 EUR 외환은행 2015.5.22. 매매기준율 적용.

- 또한 DHL그룹은 점진적인 성장을 보이는 우편-전자상거래-소포 사업부의 비즈니스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 존재하던 우편서비스 부서는 점진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될 계획임
- 전략2020 : 연계(Connect)
- DHL 그룹은 전략2020을 구성하는 두 번째 전략인 연계(Connect)를 통해 전 그룹의 임직원 및 기업의 프로세스 등을 연계시킬 수 있는 공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방침임
 - '14년 DHL 익스프레스사의 전 100,000 명의 임직원들은 공인 국제 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수했음
 - 또한 DHL 그룹은 전 그룹 차원으로 '20년까지 전 임직원의 80% 이상이 본 국제적인 전문가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이며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같은 전 그룹적인 교육을 통해 DHL 그룹은 임직원들이 서로 연계하며 같은 기업 문화, 리더십 등을 임직원끼리 서로 공유하게 되며 하나의 기업 문화 및 임직원 간의 연계 가능한 리더십은 DHL 그룹의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더하여, 본 공인화된 교육을 통해 각 자회사들 또한 고객중심으로 협력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략2020 : 성장(Growth)
- DHL 그룹은 그룹의 비즈니스 지역을 보다 다양화해 각 지역의 기존 및 신규 고객들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할 계획임
 - DHL 그룹은 '14년도 전 그룹 이익의 20%가 아시아를 포함하는 신흥시장에서 달성됐다는 사실에 기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시장에 그룹의 투자 및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DHL 그룹은 '20년까지 전 그룹 이익의 30%를 신흥시장에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힘
 - 전체 그룹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는 신흥시장 이익의 대부분은 신흥시장의 전자상거래 물류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
- DHL 익스프레스사는 DHL 그룹의 집중(Focus) 전략 프로그램과 전략2020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
- '13년까지 지속되었던 집중(Focus)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문화와 업무 구조 및 비용 구조를 개선해 자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달성했음
 - DHL 그룹 및 DHL 그룹의 자회사인 DHL 익스프레스사는 미래의 물동량 및 비즈니스 트렌드인 아시아를 선택해 자사의 역량 및 투자를 아시아는 물론 중동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음

- 이에 더하여, DHL 그룹의 신규전략인 '전략 2020: 집중(Focus), 연계(Connect), 성장(Grow)'을 통해 DHL 그룹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 DHL 그룹은 향후 본 전략2020을 통해 집중할 비즈니스의 선정(집중), 자회사 및 임직원간의 연계(연계) 및 신흥시장의 투자(성장)를 이루며 DHL 익스프레스사를 포함하는 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DHL.com, 2015.5.22 / www.gscintell.com, 2015.4.9.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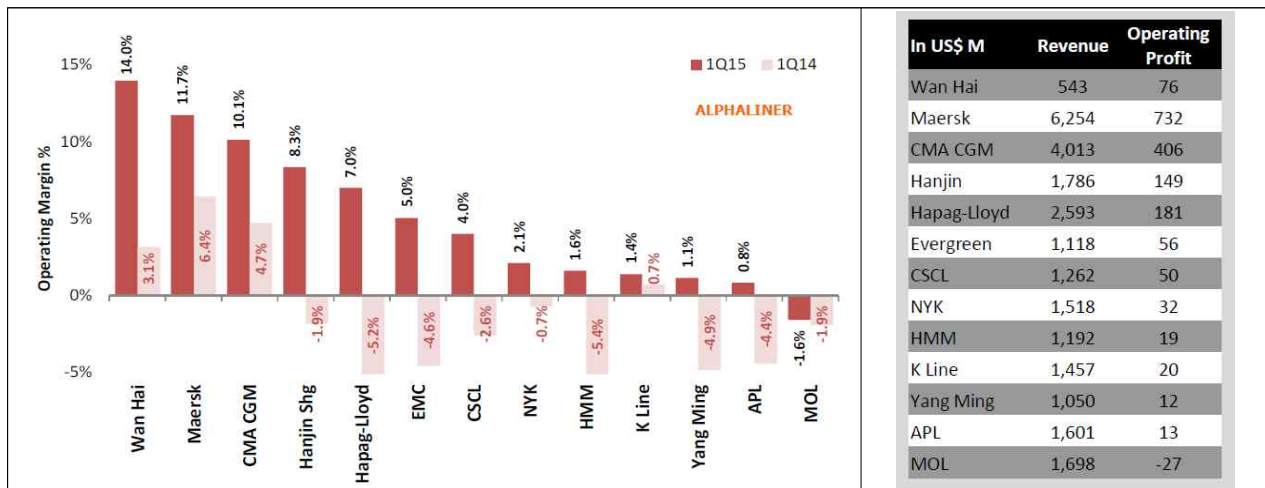
송주미 전문연구원 (☎ 051-797-4773, jmsong@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 금년 1분기 주요 정기선사 영업이익 증가에도 향후 전망 불투명

- 2015년 1분기 주요 글로벌 정기선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가운데, 대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이 주요 정기선사의 수익률이 호전된 것은 전년 동기 대비 벙커가격이 49% 가량 하락하고, 주요국 화폐 대비 미 달러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됨
- 전년 동기 대비 2015년 1분기 영업이익률에서 가장 두드러진 호전세를 보인 선사는 대만의 Wan Hai로 14%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세계 1위 및 2위 선사인 Maersk와 CMA CGM이 각각 11%를 기록했음
 - 한국의 한진해운이 8.3%로 4위를 기록했으며, 현대상선은 1.6%로 9위에 머물렀음
 - 2015년 1분기 주요 13개 선사의 영업이익률 평균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에서 5.0%로 상승해 현대상선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음

< 글로벌 정기선사의 수입.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2015년 1분기 vs. 2014년 1분기) >



- 1분기의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들어서는 다시 운임하락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기선사의 실적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인 CCFI는 1분기 대비 12% 하락했으며, 벙커가격은 지난 분기 대비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은 컨테이너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한 몫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및 남미, 아프리카, 호주 등과 아시아 항로 간의 물동량 둔화세가 예상됨

자료 :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Volume 2015 Issue 20, 2015.5.13~19.

김태일 부연구위원 (☎ 051-797-4609, ktizorro@kmi.re.kr)

□ 중국 텐진시, 타이완과 콜드체인물류 협력 가속화

- 5월 16일, 텐진시에서 '중국-타이완 콜드체인물류산업협력 및 콜드체인물류표준 설명회'가 개최됨
 - 설명회 기간 중, 텐진 동장(东疆)보세항구관리위원회, 텐진항, 텐진수산그룹 등과 타이완 HUA RUI물류와 MOU를 체결하고, 콜드체인배송 및 시설 운영 등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함⁵⁾
- 텐진시는 2014년 6월 이미 타이완공업기술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텐진과 타이완 식품 콜드체인물류산업 협력발전 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8년까지 텐진을 중국 북방콜드체인물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임
 - 동 '계획'에 따르면, 텐진시는 2곳 이상의 중국-타이완 콜드체인물류단지를 조성하여 10개 이상의 제조, 무역, 물류, 설비 관련 타이완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7개 이상의 A급 콜드체인물류기업, 3개 이상의 5A급 콜드체인물류기업을 육성할 방침

< 중국-타이완 콜드체인물류협력 발전 전략 >



자료 : The Global Logistics Council of Taiwan, 2014.7.11.

- 한편 텐진시는 중국 최초로 '콜드체인물류 보관·운송·판매 지방표준(이하 '표준')'을 제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 노력도 진행 중임
 - 동 '표준'은 미국, 일본 및 타이완의 콜드체인 관련 표준들을 참고하여 현재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청과류, 수산물, 육류, 가공식품을 주요 관리 품목으로 함
 - '표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콜드체인물류 관련 주요 설비들의 표준 제시, 둘째, 콜드체인물류 업무 규범 및 프로세스, 셋째, '표준'의 응용방법 및 관리제도 등이 포함됨

자료 : www.ceh.com.cn, 2015.5.18.

김세원 연구원 (☎ 051-797-4775, ksw@kmi.re.kr)

5) 타이완 HUARUI물류는 텐진 동장보세항구에 HUARUI물류발전(텐진)유한공사를 설립했으며(등록 자본금 8,000만 위안), 타이완 화주들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콜드체인관리, 통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임.

□ 리퍼 전용선 감소 불구 콜드체인 화물은 지속 증가

- 특수선에 주로 선적되던 냉동·냉장 화물들이 컨테이너선으로 점차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화물들이 이전되고 있으며, 시장 조정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음
 - 미국 Hapag-Lloyd의 Stuart Sandlin 수석 부사장에 따르면 리퍼 컨테이너는 냉동·냉장 화물의 세계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8년 동안 시장규모가 50~70% 가량 증가했는데 2009년과 비교해 글로벌 리퍼 컨테이너 선대도 34% 가량 증가했음
 - 또한 Sandlin은 리퍼선대의 컨테이너화는 화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 리퍼 컨테이너는 문전배송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운반용 특수 모듈의 사용을 통해 운송 화물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공급 사슬이 보다 민첩하게 작동하는데 기여했음
 - 그동안 해외에서 냉동·냉장 상품을 수입하려면 대규모의 콜드체인 창고가 필요했지만, 리퍼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최종 목적지에서의 신규 창고 건설이 불필요해졌음
- 세계에서 가장 큰 리퍼 전용선대를 통해 2000년에 글로벌 냉동·냉장 화물의 절반 가량을 운송했던 Seatrade그룹에 따르면 지난 14년 동안 자사 물동량중 3백만 톤 가량(대략적으로 12%)의 화물이 줄어들었지만 서비스 수준의 하락이 화물감소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Seatrade그룹의 Yntze Buitenwerf 대표이사에 따르면 화물 감소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40%에 달하는 리퍼 전용선대도 지속적으로 운항중이므로, 이는 시장에서 전용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함
 - 과거 10년간 전용선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사의 리퍼 전용선은 15척이 증선된 반면, J. Lauritzen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선박의 다변화 전략에 따라 케미컬탱커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임
 - 또한 Dole, Chiquita, big Dutch를 비롯한 네덜란드의 생선 회사들은 선박 전체를 용선하기 보다는 소형 화물로 운송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음
 - 반면에 신조 선박의 가격은 급속히 상승했는데, 14,000개의 팔레트를 수송할 수 있는 신조 컨테이너 선박은 3천 5백만 달러정도이지만 유사한 크기의 리퍼 전용선을 신조할 경우 6천 5백만 달러가 필요함
- 리퍼 컨테이너 또한 운영상 많은 장벽이 있는데, 표준 리퍼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당 만 6천 5백달러에서 2만 2천 달러까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대다수의 화물들이 계절적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음
 - 또한 농산물 재배지의 수확 문제로 인한 운송지연과 고정 장비의 회전율 하락, 수요 완충용 재고 확보도 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니며 유지 보수비용도 일반 컨테이너 보다 높게 나타났음
 - 또한 복합운송시, 리퍼 컨테이너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환경 규제와 관련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음

- 신흥경제국들을 중심으로한 구매력 증가 및 서양식 식습관의 확대로 냉장·냉동 화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선진국 소비자들은 연중 과일과 채소의 소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동량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화주들은 운송되는 선박의 종류에 관계없이 콜드체인화물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사들도 보다 효율적인 운송 수단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Seatrade는 '2020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컨테이너선 20척을 도입할 예정인데, 선창에 보관하는 리퍼 컨테이너는 수냉방식의 제어장치를 활용해 에너지를 40%가량 감축하고, 갑판적 화물은 리퍼 컨테이너의 냉각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임
 - 새로운 선박은 약 14,000개의 팔레트를 선적할 수 있으며 9.5~20노트 가량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최대흘수 9m의 선박으로 2016년에 4척이 인도될 예정임

자료 : www.joc.com, 2015.5.22.

이홍원 연구원 (☎ 051-797-4783, hongwon@kmi.re.kr)

□ CONCOR, 인도 하리아나 지역에 물류단지 조성 예정

- 인도 철도물류 전문 기업인 CONCOR(Container Corporation of India Ltd)는 인도 북부 하리아나(Haryana)주 지역에 철송 연계 멀티모달 물류단지(MMLP, multi modal logistics park)를 조성할 계획임
 - 신규 물류단지 부지는 하리아나주 산업·인프라개발 공사(HSIIDC, Haryana State Industri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할당 받았으며, 약 5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45,300여 평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신규 물류단지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 또는 드라이포트(dry port)로 사용될 예정이며, 복합 물류단지 기능도 수행할 예정임
- 신규 물류단지는 델리 국제공항에서 약 65km 떨어진 Delhi-Ambala-Kalka의 Sonipat-Gannaur-Panipat 지역의 철도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조성됨
 - 이를 통해 인도 북서부와 서부 지역 수출입 소요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하리아나주 Abhimanyu 산업부 장관은 인도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약 5,000여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CONCOR는 1988년에 설립된 Navratna⁶⁾ 공공 부문 사업 수행기관(PSUs, Public Sector Undertakings)들 가운데 하나로 인도 철도 노동조합에 가입된 기업임
 - 기존의 철도 산업 분야 외에도 항만·항공 화물 처리, 복합운송, 콜드체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현재 인도 전역에 62개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컨테이너화물 조작장(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을 보유하고 있음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5.11.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6) Navratna는 인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에 우선권 및 자율권을 주는 공공 기업을 의미함.

물류시장동향

□ MPA, Tuas 심수항만 확장 프로젝트 공사 계약 체결

- 싱가포르 해운항만청(MPA)은 국제아태준설기업(DIAP), 벨기에의 DEME 그룹, 한국의 대림 산업이 참여하는 합작기업과 공사 계약을 체결함
 - 본 프로젝트의 건설비용은 1,820천만 달러로, 공사기간은 약 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20개의 선석이 새로 확장되며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2,000만TEU임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MPA와 함께 항만 확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것임을 표명함
 - 터미널 확장 후 한 단계 더 효율적인 운영성과를 달성하고 최대한 선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5.05.11.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 해운·무역 분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첫 번째 수혜 영역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은 급성장하는 남미대륙과 아시아 간의 해운·무역의 흐름을 더욱 촉진시키고 북미대륙과 아시아 간의 해운·무역항로를 재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TPP의 승인 및 무역시장의 확대는 환태평양 해운항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아시아와 북미대륙을 연결하는 환태평양 항로는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세계 주요 항로 중의 하나임
 - 컨테이너 운송회사들은 아시아 역내, 아시아-남미 및 아시아-아프리카 항로처럼 고성장하는 항로에서의 추가물동량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아시아-유럽 무역에 규모가 더 큰 초대형 선박을 투입하기 시작함
 - TPP의 등장으로 미국 서부 항만들이 거점 항만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싱가포르, 베트남, 부르나이 등의 항만들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컨테이너 처리량이 증가하기 시작함
 - 현재까지 TPP에 가입한 국가들은 12개 국가로 한국은 2013년 11월부터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TPP는 농산품에서 의료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3.26.

김민정 연구원 (☎ 051-797-4777, mkkim421@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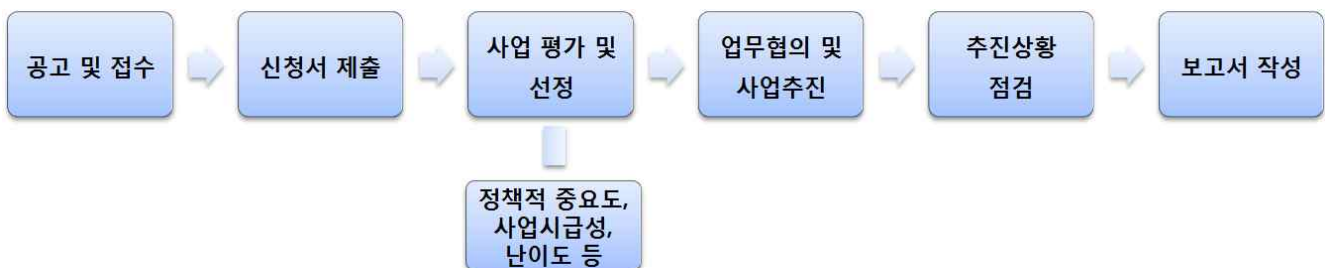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내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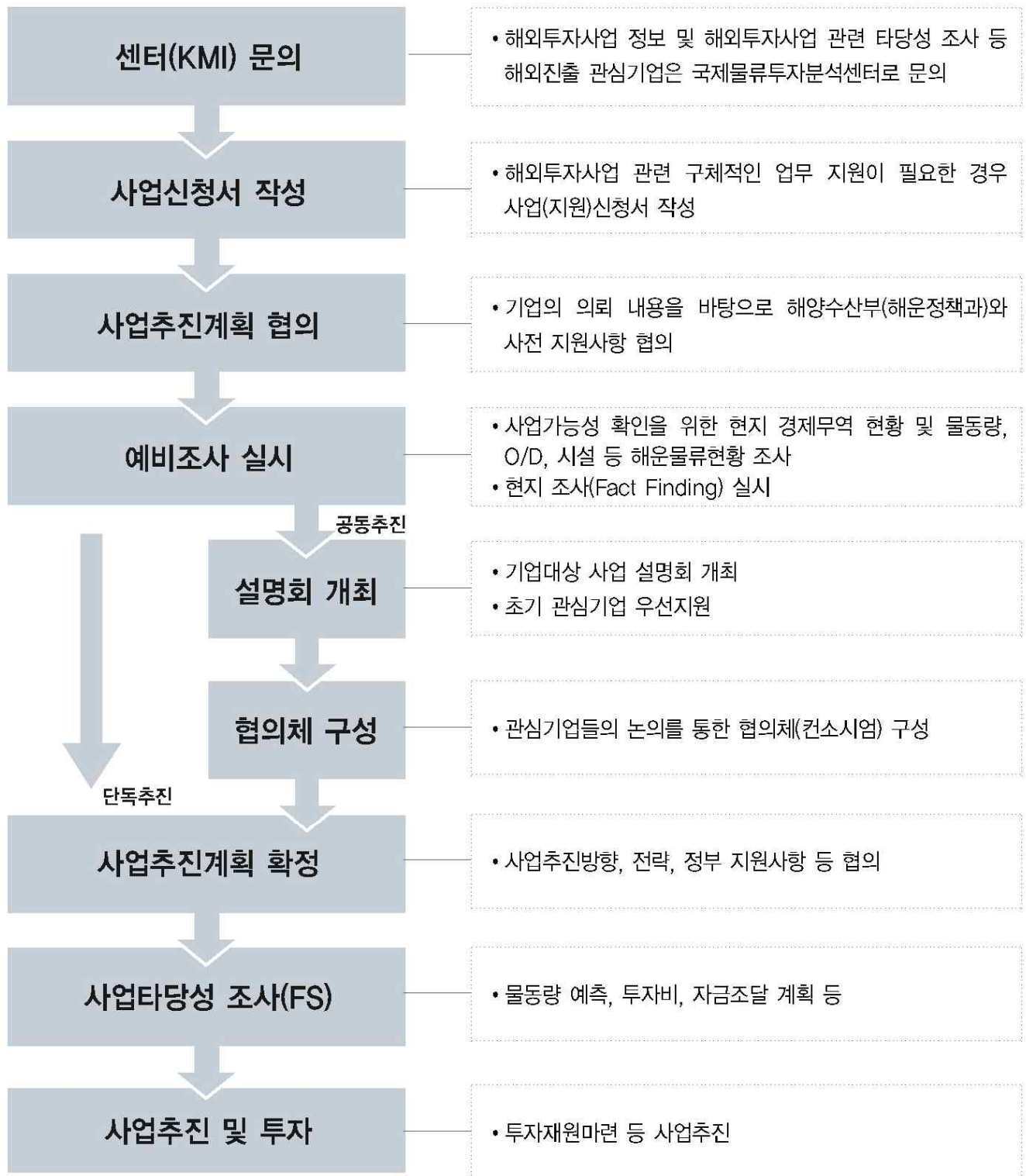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